

데스크 시국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고 있다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둔 1987년 9월 8일의 광주역 앞 광장이 떠오르곤 한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평화민주당 대표가 구름처럼 몰려든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독재정권을 이긴 것은 국민이요, 광주 시민이요, 망월동의 낯'이라며 사자후를 토해 내던 그 현장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제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던 군중들의 열띤 표정, 귀질을 찢을 듯 퍼져 나가던 크고 날카로운 확성기 소리,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그날의 모습은 지금도 뇌리에 뚜렷이 남아 있다.

당시 노태우-김영삼 후보를 상대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뤘던 김대중 후보는 광주역 광장에서 즉석 유세를 끝낸 뒤 곧바로 망월동 5·18묘역을 찾았 그 유명한

모진 겨울 견뎌 내는 인동초처럼

연설을 한다. "나는 흑독했던 정치의 겨울 동안 겨울을 이겨 내는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忍冬草)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쳐 한 포기 인동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트는 민주와 민중의 새벽을 앞장서 열어 갈 것입니다."

이 연설로 김대중은 '인동초'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은 김대중을 '열은 이파리 몇 개로 춥고 모진 겨울을 견뎌 내고 마침내 새봄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로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김대중과 함께 군부독재의 엄혹한 세월을 견뎌 온 호남은 '인동초의 고향'으로 불리게 된다.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소셜미디어에 "국민의 마음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추모 글을 올렸다.

또다시 김대중을 생각하며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5개월여 앞둔 지금 또다시 김대중을 떠올리는 이유는 정치의 새봄을 맞아 '인동초'로 대표되는 호남의 정치가 비로소 주변을 벗어나 중앙에서 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비롯해 호남에 뿌리를 두거나 각별한 인연을 지닌 인사들이 당·정·청의 요직에 대거 포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장과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빅 4' 자리를 모두 호남 출신이 채우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35%인 17명, 경기 당선자의 29%인 17명, 그리고 인천 당선자의 46%인 6명이 호남 출신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진(西進) 정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남에서 외면받는 정당엔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꽃을 피워 내고 있는 셈이다.

호남 정치 르네상스 전인을

하지만 호남 정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군부 독재에 맞서 5·18 광주정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내고 촛불 혁명을 이끌어낸 호남은, 이제 진보와 보수로 갈려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작금의 '대결 정치'를 끝장내고 '제2의 정치 르네상스'를 시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깨달아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며 개헌을 언급한 것도, 보수 야당이 정강 정책에 5·18정신 계승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전북 대초청 강연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함께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은펜칼럼

광주 의료원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올해 초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치료가 가을을 넘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또 다른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월 7일 광주시는 1000여명의 예산을 들여 250병상 규모로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읍읍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광역시중 대전, 울산 그리고 광주에만 지역 의료원이 없다.

광주시의회는 9월 중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 회의에 '지역 공공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조사 결과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 할 수 없으며 지역 의료원 사업도 같은 사정이다. 대전광역시 의료원도 이런 이유로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고 준비 중이다. 국가 안보, 도로 유지 보수 등 국가가 지정한 10가지 사업군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할 수 있다. 설립과 운영상 적자가 불가피한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조사 면제 건의안은 '광주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정치적 표현이다.

지난 8월에는 이번에 당선된 지역구 의원, 광주시 보건국장과 시의사회장이 지역 의료원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방송 토론회를 하였다. 9월에는 광주시의회가 광주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계층간의 구분을 없

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상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도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도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체계와 수가 구조에서 설립과 운영상의 적자를 피할 수 없다.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집중했으면 한다. 감염병에 인한 피해도 사회, 경제적 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계층간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소외된 계층의 의료 불평등은 인구 대비 병원, 병상 수, 의료진 수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광주의 상황을 고려해 물리적, 인적자원을 갖춘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독립된 의료서비스도 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계층간의 의료 불평등이 병원들의 과도한 영리 추구 때문이라는 것은 수가 구조와 의료

체제와 같은 현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며 정책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는 의료원 설립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광주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광주 시민사회의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노력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의료원 설립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 방역 전문가와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의 의학적, 사회적 견해 등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가 존중받으며 민주적 방법의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광주 의료원 설립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비롯한 정치판에서 정쟁의 도구, 정치적 잇속 계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광주 의료원은 현재 대학병원에 위탁 중인 감염병 관리지원단,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과 감염 관리의 중심적 기능을 해야 한다. 국가 고문 피해자를 위한 광주 트라우마센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가 함께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

社說

자치구 간 경계조정 이번엔 결론 내려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5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전남도의 광역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재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그제 "최근 시의원과 6개 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차례로 만났으며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모두가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재가동, 개편 대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 설문과 연구 용역을 통해 경계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지 주민과 일부 지방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용역에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소폭 조정안은 두암 1·2·3동과 문화동·풍화동·석곡동 등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첨단1·2동 등 광산구 2개 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가다 선거구 등 12개 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 선거구 5개 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자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필요성은 동구에 있던 광주시장이 상무지구로,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05년 이후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으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로 동구는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자치구 간 인구 편차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 대안 가운데 소·중폭 조정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물론 자치구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경계조정은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과 광주시는 이번엔야말로 정치적 이해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엔 성범죄까지 경찰 왜 이러나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주 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는가 하면,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로 적발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비록 일부이지만 실망스러운 경찰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정리당 이은주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광주·전남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은 85명(광주 35명, 전남 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9명, 성범죄·아동성소년법 위반 7명, 금품 수수 6명, 사기 4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 경찰의 경우 강간·성매매·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된 경찰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형당시대(對) 여성 범죄 지도·단속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 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음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 속에서 음주 경찰관의 경우 28명 가운데 4명만이 중징계에 속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징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4명, '강등'은 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불법·비위 행위는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고 올바른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시민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다. 비리·비위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 기강 확립 교육과 함께 징계 수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경찰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無等鼓

봉준호 감독의 2008년 작 단편 '흔들리는 도쿄'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다룬 영화다. 10년간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남자 주인공은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피자 배달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 날 용기를 내 집 밖으로 나선다. 하지만 도쿄의 모든 사람이 히키코모리(引き籠り)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녀를 찾아내는 순간, 강한 지진이 도시를 흔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봉 감독은 도쿄 사람들의 고독을 표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히키코모리를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이슈가 된 것은 비교적 오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40~64세 중년층 히키코모리만 61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도쿄에선 정부 부처 차관을 지낸 76세 아버지가 44세 히키코모리 아들을 살해해 충격을 주었다. 장기간 실업 상태였던 아들이 폭력성향까지 보이자 말다툼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

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15~39세 2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4.2%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것은 실업과도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은둔형 외톨이 양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상이 된 비대면 문화 속에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조차다. 광주 지역 이파트 10%(5만 6000여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지역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이번엔 정책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기고

마스크 뒤에 숨어 양심을 팔지는 말아야 한다



김용하
전 광주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까지 감염되면서 온 세계가 펜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적 위기와 이차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품이 된 것이 마스크(mask)인데 이는 '얼굴을 감추거나 탈리 꾸미기' 위하여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또는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가면이나 탈도 일종의 마스크인 셈이다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은행 자동화기기 앞

에서는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 쓰는 것을 금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따금 복면 강도나 범죄 행위시에 착용하는 소품 정도로 생각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이 생기고, 기본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다름이 생겨서 폭력에 유발되는 사례까지 생겨 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 생활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언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10개월 전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낙엽하고 여유로웠는지 그리울 정도이다. 마스크가 최대의 백신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연하게 발표하면서 온갖 매체와 SNS상에서 홍보하고 주입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마스크가 생명의 보호 장치가 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다 보니 마스크라는 가리개 뒤에 적당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누리는 느긋한 나태와 은일, 자유 뒤에는 염려되는 점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익명의 뒤에 숨어서 인터넷에 온갖 상호 비방과 욕설·거짓 뉴스가 난무하는데, 과연 마스크 뒤에서 체면의 의식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는 일은 없을지 경계하는 마음이다.

안동에 가면 하회별신굿을 하며 쓰는 하회탈이었다. 무려 80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지금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각사·양반·부녀·중·초랭이·선비·이매·백정·할미 아홉 가지이고, 그 외에 딱달아·별채·총각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빼앗겨서 국내에는 없었다 한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탈을 썼느냐에 따라 때로는 총통이 되고, 양반이 되고, 할미, 선비가 되고, 백정이 되어 역할과 태도도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어쩌면 둘러싼 탈이 '탈'인지 모른다. "가면을 쓴다"는 말은 "본래의 자신을 감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기에 요새처럼 마스크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무의식중이라도 혹시나 진심과 진실을 속이는 일이 없을지 자계(自戒)하게 되는 것이다.

맹자의 '진심'편에 맹자가 제자 만장자와 대화를 나누는 대목에서 "공자는 겉으로는 행동이 정결결백한 것 같지만 속내를 감추는 사이비를 미워하셨다"라고 하

고, 안자춘추에는 "쇠머리를 문에 내걸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판다. 도처처럼 행하면서 공자의 말을 한다(晏子春秋. 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內, 盜竊乎, 孔子語)"고 말했다.

흔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거나 후안무치(厚顏無恥)라고 하는 경우다.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사는 것은 채 한 뼘도 안 되는 얼굴의 체면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요새 정국을 강타하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삼중이나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증거가 없어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면책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양심과 본래적 가치를 숨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공인들은 신기독야(慎其獨也)의 마음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경계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역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